

들어가기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고위관 리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의 가족으로 영입이 되고 성장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한 개인을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이방인 전체에 대한 복음의 확장을 말합니다.

둘러보기 주님의 부탁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의 증인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고 여쭙어 질문 합니다.(1:6) 6절에서 “여쭙어 이르되”는 평범한 질문이 아니고, ‘긴박하게 반복하여 되묻는 태 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회복”은 일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빼앗겼던 영토를 되돌려 받을 때 사 용되는 행정적 용어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용어로 질문하였을까요? 제자들이 “때”를 국가 의 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침공당하고 포로로 붙잡 히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가 독립은 역사적 과제였고, 민족의 염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회복을 국가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 속에는 자신들은 잘 준비되었고, 지금 정당하다는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주님이 이루실 일이 국가의 독립이라는 생각이 틀렸을 것이 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었습니다.

Q,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직전에 예수님께 여쭙어 본 질문이 무엇입니까?(행1:6) 이 질문 에서 제자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와 시기는...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 하십니다.(1:7)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 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독립의 시기를 염두에 둔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결혼식을 두 차례로 치룹니다. 먼저 신부집에서 정혼을 한 후, 신부는 신부집에 남고, 신랑은 일 년 후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일년 후 어느 날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집의 가풍을 배우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종들과 함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성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요14:2) 신랑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신부를 데리러 가 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Q,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행1:7)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승천하십니까?(요 14:2~3)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을 것을 부탁합니다.(1:8) “권능”은 헬라어 ‘듀나미스’ 로서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큰 단위가 없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을 묘사합니다. 성령이 임하

여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성품과 인생이 변화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대책 없이 보내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1:8) 이 부탁은 전도지 들고 선교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충만의 첫 번째 삶의 현장은 가정입니다.(엡5:18~) 가장 가까운 곳이 먼저 평생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Q.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행1:4) 그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무엇을 받게 됩니까?(행1:8)

또한 예수님의 승천직전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행1:8)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성령충만하여 선교하여야 할 첫 번째 현장은 어디입니까?(엡5:18~6:4)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질문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반어적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반어적 질문 속에는 시험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내라는 부탁입니다. 성도는 오늘이라는 현장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Q.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행1:11) 하늘을 쳐다보는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오기 삼일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름선교라는 과제 앞에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 맡긴 일상을 잘 감당하면서 부역으로, 캠퍼스로, 일터로 증인으로서 가야 합니다.

▶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령충만한 삶을 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서로 나누어봅시다,

▶ 내일 제주선교를 시작으로 여름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에 대한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이번 여름에 어떻게 선교에 임할지에 대해 결단하며 서로 발표합니다,

기도 : ♪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령충만함을 위해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제주선교의 모든 일정과 선교의 열매와 안전, 영육간에 강건함 위해

이번 여름 선교대원의 채우심과 모든 사역을 위해

각 공동체의 회복과 모든 지체들의 하나됨을 위해